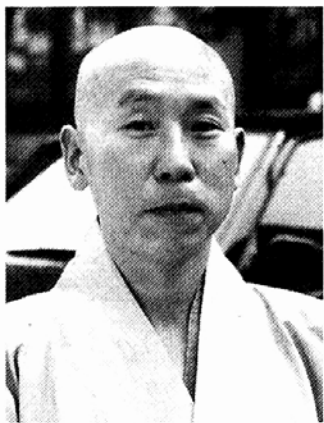


사찰의 회장에 듣는다

“사찰을 문화심터로 개방”

공주사암련 장곡스님



“개별 사찰이 청소년·문화·환경분야 등 특색에 맞는 포교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이 지역주민들이 찾고 싶어하는 정신적 문화적 심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제 고도(古都인) 공주시에 마곡사 감사 동화사 등 유서깊은 사찰이 소재한 탓인지 13만여 시민 상당수가 불자인 불교 도시다. 현재는 불자 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부권에서 불교세를 자랑하는 곳이다. 91년 창립된 공주사암련합회 회장인 장곡스님(감사 주지)은 “조계종 전법도량인 백제불교회관을 대전시내에 건립하는 등 최근 활발한 지역 포교로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중이다”면서, “30여 개의 회원 사찰들이 저마다 특징있는 포교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6교구본사인 마곡사가 복지분야, 원효사 및 불광암의원이 어린이·환자 포교를, 감사와 동화사가 문화·환경문제를, 야생화가 핀 생태사찰로 유명한 영평사가 청교련 공주지부를 맡는 등 지역포교의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감사와 동화사는 계룡산 온천 개발 및 자연사박물관 건립 백지화를 이끌어 내 지역사회에 신뢰를 높였다.

장곡스님은 몇 년전부터 감사를 시민·환경·문화단체에 개방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문을 연 백제불교회관에 정부종합청사불자회, 충남도청불자회, 대전경찰청 불자회, 대전연인문화자회, 대전교사불자회, 대불청, 대불련 등 30여개 신

행단체가 함께 법회와 사무를 보게 된 것도 감사에서 맺어진 인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94년 공주 불교회관을 건립하고 백제문화제 및 유등제 개최, 영유대사 묘소 성역화 작업 등을 펼치며 활발한 지역포교를 펼쳐 온 공주사암련은 장기 불황으로 인해 불교교양대 운영이 중단되고 회원사찰의 참여도가 낮아지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곡스님은 “회원 사찰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각 사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력을 강구하겠다”면서 “아름다운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 유서깊은 백제문화의 고향, 순박한 인심 등 좋은 포교 여건을 갖춘 공주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공주=김재경 기자 gkim@buddhania.com

복지·환경등 전문포교 앞장

계룡산 무분별개발 저지 성과

장곡스님은 “회원 사찰간의 유대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각 사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력을 강구하겠다”면서 “아름다운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 유서깊은 백제문화의 고향, 순박한 인심 등 좋은 포교 여건을 갖춘 공주불교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남·북·일 합토 ‘통일도자기’ 완성

대성사 기념식...전세계 지도자·남북불교계에 전달

남한과 북한, 일본(히로시마)의 흙을 섞어 빚은 ‘통일기원 도자기’가 완성됐다.

지난 7일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대성사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와 일본의 대성사(주지 후쿠엔지 다이에이)가 공동으로 추진한 ‘남북 화해와 세계 평화를 위한 도자기 제작’이 완료돼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 날 기념식에는 실천승가회 대표로 참석한 효림 일문 만정스님과 일본 진언종 최고원로의원 후쿠엔지 가이도(福田寺 戒道)스님, 히로시마의 박승무 총영사 부부와 후원사인 일본 ‘울산금고’의 지점장 마에하라(前原福福)씨 등이 참석했으며 NHK, 아사히 신문, 서일본방송 등 일본 언론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이번에 완성된 ‘통일기원 도자기’는 지난 2월 26일 파주 보광사(주지 일문) 채토사에서 담아 온 흙과 북한의 흙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상징으로 남아 있는 히로시마의 흙을 한 데 섞어 일본 대성사 주지 후



호림스님(오른쪽)과 후쿠엔지스님이 일본 대성사에서 각각 정상들에게 보낼 통일도자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쿠엔지 다이에이(福田寺 大英)스님이 직접 도자기를 빚어 가마에 들어간 후 보름 만에 완성된 것.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는 도자기는 이달 중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내지며, 특히 남북의 정상과 남북 불교계에도 한 점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서 실천승가회와 대성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이 도자기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이 각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 더 이상 하나의 민족끼리, 이웃끼리 반복하고 질식하는 아픈 현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남한에서 다시금 남북의 정상이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

김재경 기자

핵폐기장 갈등 ‘불심 중재’

강진사암련 공청회 열어서태 수습

강진불교사암련합회(회장 수련)가 방사성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찬·반의견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민들의 화합을 유도해 화제다.

강진사암련은 12일 강진군민회관 회의실에서 찬성·반대측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성 핵 폐기물 유치 찬·반 공개토론회’ (사진)를 개최해 방사성 폐

기물의 강진 유치 반대로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간 강진군에서는 지난 3월부터 공사비 1조5천여억원 규모의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둘러싸고 경제논리를 앞세운 찬성측과 환경논리를 앞세운 반대측이 팽팽히 맞서 폭력사태로까지 번질 조짐마저 보였다. 전국 어느곳 보다 개신교세가 강한 지역에서 불교계가 지역현안에 대한 중재역할을 맡으며, 지역주민

선암사 강원 “중흥”

후원회 만들어 교육혁신

태고종립 선암사는 강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동창회를 모집하고 있다.

선암사는 우선 울릉부 2명의 강사를 새로 초빙해서 내외(內外) 강의를 보장하고 특강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한 태고종 총무원도 현재 선암사 강원예에 적응 두고 동방 불교대학을 병행 수학과자 하는

학인을 대상으로 장학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강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사와 후원회원, 일반회원 등으로 구성된 후원회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토대로 명실상부한 태고종립 강원으로서의 위상을 세워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도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허 선암사 주지는 “후원회 구성에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61)754-5247. 이영숙 기자

종단소식

태고종

합동득도 98명 승적 취득

총무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태고사에서 제24기 합동득도 수계신림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수계자 98명(사미 86명, 사미니 12명)에게 승적을 발급했다. 이번 교육은 참회정진, 참선수련, 태고사 참배, 강의,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태고종은 매년 합동득도수계신림에 참가하는 행자들에 대한 승적 발급 기준을 강화시켜 오는 2005년까지 중립학교(동방불교대학·선암사 승가대학)를 졸업하는 수계자에 한해서 승적을 주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선각종

5·18 맞아 헌혈행사



총무원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선각종, 5·18민중항쟁 구국자회와 공동으로 15일 광주 관천터미널 광장에서 5·18정신계승 제 6회 헌혈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11공수 장병 40명과 31사단 장병 300명이 헌혈에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고재유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미타종

천룡정사 관음상 점안

경북총무원이 소재한 풍기 천룡정사(주지 지담)는 20일 오전 조계종 중정 서암스님을 증명법사로 해수관세음보살상(27자) 점안식을 봉행했다. (054)638-1355

자비의 산사음악회

해원정사 26일...수익금 소년가장 돕기

부산 해원정사(주지 효명)가 소년소녀가장 돕기 열린음악회를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26일 해원정사 마당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열린음악회의 수익금 전액은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사용하게 되어 음악회의 감동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

이날 열린음악회는 한병창씨의 사회로 김홍국, 고병희, 배파라기, 박정수, 박상운, 불교연합합창단 등이 출연해 ‘바람부는 산사’, ‘유리창엔 비’,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호랑나비’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게 된다.

효명스님은 “주인,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을 다지는 공연이 되었으면 한다”며 “좋은 법문도 좋지만 음악을 통한 감동으로 인간 본연의 따뜻한 사랑을 되찾아 그 사랑이 소년소녀가장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음악회를 열게 된 뜻을 밝혔다. (051)866-7772 부산=천미희 기자



5·18 21주기 합동천도제

광주불교사암련합회(회장 성화)는 17일 광주 팔림동 신묘역에서 문민정사 주지 석강, 무각사 주지 광민, 법륜사 주지 월인, 현명사 주지 지명, 신흥사 주지 경주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민주항쟁 21주기 합동천도제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성호스님은 “5·18 피해자의 국가유공자 대우 및 5·18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삼시다. 프로에서 불기건강비법 약초여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한재를 탕재로 하여(한박스 60포)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 셋째, 중풍에 특효이며 풍에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경(풍팔)을 튼튼하게 하여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명이나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463번지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 마가목은 특유이런 환경에 부합이 있으므로 불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016) 222-7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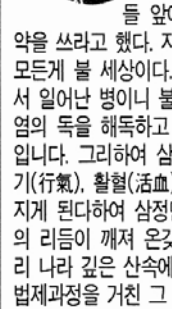
보시금은 불심정사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정강 대 전 입장

현시대의(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호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양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고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배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성욕감퇴, 유정, 정지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람과 빛의 신령한 기운, 영묘한 기운」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병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 겸용 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한은행 건물)